2020 어린이청소년 포교 기상도 '맑음'

조계종 어린이 · 청소년위원회 11월 19일 회의서 계획 공개

5기 위원 위촉 함께 열려
미래포교 종책개발 박차
전국조직 네트워크 확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위원회와 일선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삿말을 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들이 2020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5기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들의 신년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

파라미타, '사찰 연계' 주력

먼저 불교계 대표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사찰 연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연합캠프를 비롯해 사찰연합법회, 청소년문화지킴이, 국제교류협력활동, 한일불교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단체들의 학교내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에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연합캠프의 경우 17개 지역에서 800여 명을 유치하며, 서울경인에서 10곳 이상 사찰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국사경공모전과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 전국청소년전통등 공모전 등 전국 규모의 청소년 행사를 개최한다.

동련, '모바일 · 온라인' 활용

어린이단체인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법회 교육자료 지원 및 지역포교를 위한 지도자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특히 모바일 시대를 맞아 연꽃지도안 동련지의 모바일 제작 및 밴드 활용 보급을 하며, 인욕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통해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용 명상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또 교육당국의 국제포상제 운영에 맞춰 자기도전, 국제포상 탐험활동을 전국 단위로 연합개최하고 포상담당관 교육도 연 2회 이상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불교교사대학의 온라인 운영을 통해 재입학생 10명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불레협, '문화사업'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 포교를 진행한다. 6곡 이상 신곡 율동 개발 및 보급을 진행하며 율동리더 15인 이상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도자를 15곳 이상에 파견하고 전국어린이등공모전을 통해 등 150점 이상을 공모 받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을 활성화해 전문지도자 연간 60명을 누적배출하고 찾아가는 강습회도 진행한다.

좋은벗풍경소리, 50집 기념활동

창작 찬불동요 제작단체인 좋은벗 풍경소리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 및 연수회에서 풍경소리 음반 보시를 통한 찬불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그동안 펴낸 풍경소리가 50집을 맞음에 따라 이를 기념한 대중가수 위주 기념 불교음악회를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펴낸 찬불가 중 인기가 많은 곡을 중심으로 베스트앨범을 낼 계획이다. 찬불가와 찬불교재는 CD뿐만 아니라 USB로 제작해 다른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와 협조해 배포할 계획이다.

스카우트불교연맹, 전국조직 확대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조직확장에 나선다. 15개 지구연합회를 조직하고 각 조직별 거점사찰을 지정한다. 특히 유능한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실시한다. 재가지도자의 경우 학부모와 종무원, 포교사,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대만, 홍콩 태국의 외국 참가자들과 지속적인 국제 우의를 다져갈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전법을 위한 종책 개발과 각급 어린이청소년 단체 지원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포교부장 가섭 스님, 파라미타협회장 지현 스님,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혜장 스님 등 어린이청소년단체장들과 중앙종회의원 정현, 인오 스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 전에는 위원장 가섭 스님과 사무처장 무일 스님을 비롯해 위원 지현, 정현, 성행, 신공, 인오, 혜장 스님 등 총 8명으로 5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식도 개최됐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으로 임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종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미래불교 포교와 전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음으로 하나 된 부산 '여덟 송이 노래 꽃 피었네'

불도 부산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을 찬탄하는 합창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 꽃을 피웠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임숙)은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2019 부산불교합창제 여덟 송이 노래 꽃이 피었네'를 개최했다.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박미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동참했다.

합창제는 1부 개회식에서 환영사, 치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공연에서는 혜원정사합창단, 금강암합창단, 내원정사합창단,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대원선재 해련합창단, 대광명사합창단, 영주암합창단이 무대에서 찬불가와 자유곡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또 불교TV BTN남성중창단이 멋진 공연을 보여줘 박수를 받았다.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창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신심을 담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음성 공양이다"며 "저희 합창단은 찬불합창을 통해 널리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 스님은 "여덟 송이 노래꽃을 주제로 우리에게 환희심을 줘 감사하다"며 "꽃다운 단원들이 무대를 장엄한 멋진 공연이 자랑스럽고 허공계를 장엄하는 거룩한 불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11월 21일 불교작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작가와 스님들이 '사바하'를 외치고 있다.

"'신과 함께' 같은 명 콘텐츠 함께 만들어요"

조계종 포교원, 불교작가 네트워크 구성 박차

"우리 함께 파이팅 해볼까요?" "파이팅 말고 우리 힘내자는 '사바하' 합시다. 사바하는 불교에서 파이팅과 같은 의미에요. 비록 영화제목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말이죠."

그동안 잘못 알려져 왔던 불교 상식을 작가들에게 전하고 새로운 불교 관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모임공간 다락방구구에서 작가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네트워크 파티는 조계종 포교원이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작가 템플스테이와 뉴미디어 사업을 통해 관계 맺은 작가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평일 오후 임에도 이날 자리에는 사전에 신청한 작가 6명이 참여해 함께 작품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불교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노명희 여성만화가협회장은 "지난 작가 템플스테이에서 그동안 불교적 소재라고 알려진 많은 콘텐츠들이 사실 불교내용을 잘못 알리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불교 소재를 개발해 독특한 작품활동을 펼쳐보고 싶다"고 기대를 표했다.

KBS드라마 작가로도 활동 중인 조용득 작가는 "신과 함께의 경우 불교내용을 가지고 흥미롭게 각색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현재 귀신과 관련된 소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친밀감을 되살려 재미있으면서도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 스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최근 힐링멘토로 떠오르고 있는 도연 스님 주도하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마음챙김 명상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2부에서 현주 스님의 진행 하에 2시간 가량 자유로운 대화로 '불교 신앙'에 대한 Q&A토크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군승의날 51주년 기념 법회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11월 28일 용산 전쟁기념관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군승파송 51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법회서에는 조계종 주요 스님과 현역 및 예비역 군승 등 불자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군포교에 공적이 있는 군승과 단체에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군종교구장상 등이 수여된다. 법회에 앞서 국방부 원광사에서는 군승포살과 순직군승 추모재, 군승회의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추운 겨울 군부대에서 활약하는 군승법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포교의 기치를 세우는 자리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2월 5일 12시 국방부 원광사에서 장군진급 불자 고불식 및 축하 만찬을 개최한다. 군종특별교구는 매년 장군으로 진급한 이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하사한 장군 지휘봉과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준비한 '평화의불 수놓다' 서적 등을 전달하며 활발한 군포교를 당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